더불어민주당	보 도 자 료	2022. 3. 4.(금)
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		
(문의) 02-784-9862		

김건희 서울대 EMBA 동기 간 '수상한 특수관계', 잔고위조 공모의혹

○ **현안대응 TF, 尹 장모 사문서 위조 등 판결문 분석, 김건희-잔고위조범 김씨-신안저축 박 전 대표 서울대 EMBA 동기,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가능성 제기**

○ **최씨 공동 잔고위조범 김씨, 신안저축은행 건물 위치한 본인 회사서 위조 범행, 이후 신안 계열사 '미래전략실장'으로 선임**

○ **김병기 단장, "피해자가 가해자를 챙기는 수상한 정황, 김건희씨 서울대 EMBA 동기 '특수관계' 중심으로 '잔고위조 공모' 의혹, 미심쩍은 범행 모의 의혹과 尹 수사 부당거래 철저히 밝혀야"**

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(상임단장 김병기)는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등 위반에 관한 1심 판결문을 통해 김건희씨와 서울대 EMBA 동기들의 수상한 잔고위조 공모 정황을 포착했다.

김건희 母 최씨의 사주로 **잔고를 위조한 김건희 동기 김 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김건희 또다른 동기 박 전 대표의 신안저축은행과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**한다. 김 모씨는 이곳 **F회사 사무실(신안빌딩)에서 피해자이자 동기가 대표로 있는 '신안저축은행'의 잔고증명서를 위조**한다.

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등 위반 1심 판결문

가. 피고인 B는 2013. 4. 1.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㈜F 사무실에서, 피고인 A과 C의 부탁을 받고 PC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'피고인 A이 2013. 4. 1. ㈜G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에 10,000,185,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'는 내용의 ㈜G(대표이사 ○○○)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기안하고, 인터넷에서 찾은 위 은행 감사보고서 중 위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인영 부분을 복사하여 이를 미리 기안한 문서에 붙여 넣고 이를

김씨(김건희동기)

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

김 씨 회사 및 신안저축은행 등기부등본

김씨가 잔고증명서 위조한 F사무실

신안저축은행박 전대표사무실

즉, **가해자 김씨의 회사는 피해자 신안저축은행과 한 건물인 신안빌딩이며, 이 곳에서 위조 범행이 이루어진 것**이다. 이같은 범죄 사실은 2017년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와의 재판 중 드러났고, 당시 **신안저축은행은 재판장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.** 그럼에도 이듬해 신안그룹은 **가해자인 김씨를 고발하기는커녕 계열사 임원으로 선임**한다. 이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'수상한 공생관계' 의혹이 불거진다.

사실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범 김모씨와 김건희씨, 신안저축은행 박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한 사이로, 이들의 '수상하고 특수한 관계'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되어 왔다.

서울대학교 EMBA 2기 졸업생 명단(서울대학교 자료회신)

8	경영학과(Executive MBA)(경영학전공(Executive MBA))	김건희	2010-03	졸업
	경영전문석사(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(Executive MBA))	KIM KEON HEE	2012-02	
19	경영학과(Executive MBA)(경영학전공(Executive MBA))	김 → 잔고위조 공범	2010-03	졸업
	경영전문석사(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(Executive MBA))	Kim	2012-02	
27	경영학과(Executive MBA)(경영학전공(Executive MBA))	박 → 신안저축은행 대표	2010-03	졸업
	경영전문석사(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(Executive MBA))	PARK	2012-02	

2012년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박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를 고발하는데, 이듬해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킨다. 수사 종결 전, 장모 최 씨는 사위 尹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인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의 대출을 받는다. 수사 종결 이후에도 48억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는 등 수사 전후로 136억 상당의 특혜 의혹이 있는 대출을 받는다.

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"피해자가 가해자를 챙기는 이상한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, 김건희씨 서울대 EMBA 동기들 간의 '수상한 특수관계'를 중심으로 한 '잔고위조 공모' 의혹이 충분히 의심된다"며,

"'특별하고 수상한 관계'에서 비롯된 위조 범행 모의 의혹과 윤석열의 '2013년 신안 수사 봐주기'가 부당거래는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"하다고 밝혔다.